



애경산업, 다문화 가정 '독도·울릉도 탐방 캠프'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대상 '독도·울릉도 탐방 힐링문화체험캠프'를 진행했다고 5일 전했다. 애경산업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 /애경산업

네이버 ESG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 수상

네이버의 ESG 경영 행보가 세계적인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인정받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가 발행한 2020년 ESG보고서와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가 글로벌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인 'ARC 어워드'와 'LACP Vision 어워드'에서 동시 수상했다.
 네이버는 올해 첫 발간한 '2020 ESG보고서'가 2020 LACP Vision 어워드에서 대상(Platinum)을, 2021 ARC 어워드에서도 Specialized Annual Reports 부문에서 대상(Grand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



하나은행,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참여
 하나은행이 자폐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랑, 하나, 오티즘(Autism·자폐성 장애)레이스'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는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마라톤 캠페인이다. /하나은행



기아, 임진한 프로와 'K9 골프 클래스' 개최
 기아는 더 K9 멤버십 가입자를 위한 초청 행사 '임진한 프로와 함께하는 K9 골프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과 다음달 전국 서울·경기 등 주요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기아

제8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는 7~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제8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종근당 예술지상2019' 선정작가인 양유연, 유현경, 이제3명의 작가들이 3년간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회화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



**홍경안의
 서시일각**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낮은 수입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제한된 몸거리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활동 형태로 인해 일반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주거 불안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술인들이 겪는 민생고는 미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심적 붕괴를 가져온다.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부유층의 취미와 기호에 응수하는 양태에 젖게 될뿐더러 가장 치명적 권력인 자본주의에 무릎 꿇음으로써 예술의 장식성·허위성을 찬양하고 만다. 국내에서 실력 있다는 예술인들이 점차 예술계를 떠나거나 작업 내용이 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재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복지법을 뿌리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건강한 예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을 비롯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술가들의 경제적·직업적 어려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용자를 운영해 경제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전국의 12개 지역재단과 협력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등의 프로젝트로 전공 관련 일자리 창출, 대인 교류,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

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금융지원방안과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행정과 예술의 상이한 틈을 메울 인력 및 기관의 전문화도 꾀하는 중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큼 쉬운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려면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당장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키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시행 중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등에서도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과 상당한 양의 업무 대비 재단 상근 인원이라고 작 40여명을 웃돈다.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술인을 살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한

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과 비교해도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웃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예술계 및 관계 기관 내부의 논의나 제도 정비·인원 충원만은 예술가들이 부르짖어 품에서의 성장에 거리를 둔 미적 태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동시대 담론과 예술 향유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의 가치 확산에 있어 우선해야 할 과제다.
 물론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예술계는 예술이란 공공의 삶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예술가들의 미학적 성취와 실험의 성과는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미적 민주화를 넘어 삶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미술평론가

삼성전자, '전국기능경기대회' 15년 연속 후원

전국 7개 경기장 1800여명 선수 후원사 최대 2억5000만원 후원

삼성전자가 15년째 명장 발굴을 돕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능경기대회는 전국에 기능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우수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다. 올해에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7개 경기장에서 1800여명 선수들이 참가한다.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는 컴퓨팅, 산업용 드론제어 등 3개 직종이 새로 신설되며 53개 직종으로 열린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현장에서 시행하며, 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모습 /삼성전자

장 모습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후원사 최대 금액인 2억5000만원을 후원하고, 직종별우

한다. 후원 금액은 누적 95억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28개와 은메달 16개, 동메달 8개 등 성과도 거뒀다. 전국대회 출전 우수기능인력 채용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사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최상위 타이틀 스폰서(OEP)로도 활동했다. 러시아와 베트남 대표 선수들의 국내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내며 양국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퍼플'이라는 CSR 비전으로 기능경기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과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uk@

최형석 LGD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 공로 25년간 TV·모바일 등 사업 경험
 LG디스플레이가 다시 한 번 은탑산업훈장 수상자를 배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제12회 디스플레이의 날'에 최형석 부사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최 부사장은 IT사업부장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중소형 OLED 분야 역량을 키워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부사장은 25년간 TV와 모바일 등 사업 영역을 모두 경험해왔으며, 2015년 선보인 스마트워치용 P-OLED와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



북용 P-OLED 제품 개발을 이끄는 등 하이엔드 IT 시장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최형석 부사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는 올해 코로나19로 별도 시상식 없이 포상만 전달했다. /김재용 기자

인사

- ◆ 한화솔루션 <승진 (케미칼 부문) > △부사장 김재형 정훈택 △전무 이기수 원재식 주재순 △상무 권영삼 김청운 김형무 변성준 안귀룡 정두영 한승희 <큐셀 > △전무 반춘장 유재열 최문성 △상무 김봉수 서신원 신승현 안수만 이승윤 한진 <침탄소재 > △전무 최명환 △상무 박찬기 신동환 윤희주 황택훈 <유럽 에너지 부문 > △상무 이훈성 임성철 <인사 이트 부문 > △부사장 임재환 △전무 여성진 △상무 이종열 <갤러리아 > △전무 김태원 △상무 강신호 박영수 이림 <전략 > △전무 김기홍 △상무 오명일 조용우 한상윤
- ◆ 디지털데일리 <편집국 승진 > △부사장 최승철 △논설실장 겸 뉴미디어기획실장 박기록 △편집국장 채수웅 △산업부부장대우 윤상호 △디지털혁신팀 차장 이상일 (팀장) △통신방송팀 차장 백지영 (팀장) △인터넷팀 차장대우 최민지 (팀장) <마케팅국 승진 > △오주영 부국장 김삼우연 차장 △유남미 차장

- ◆ 한양증권 <센터장 보임 특수IB센터장 박태진 > △부사장 보임 특수IB2부장 오택호 △부사장 신규 보임 특수IB4부장 이재학, SF사업 2부장 김종수
- ◆ 바베파파 △부사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김선국
- 부음**
- ▲ 권순녀씨 별세·안만복 유환 건한(성북웰니스요양병원 영상의학과) 명진 영환씨 모친상·안유리나씨(1코노미뉴스 편집장) 조모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02) 2227-7544
- ▲ 김형임씨 별세, 김정환씨 부인상, 김성철·김성훈·김대현(서울고법 판사)씨 모친상, 박종성·박홍술·김주혜씨 시모상 = 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100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2-272-1111
- ▲ 조복식씨 별세·이유준 진옥씨 모친상·조영진(남부공항서비스 사장)씨 조모상=5일 오전 3시 온종합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51)607-0111